



**어린이 경찰들 서바이벌 특공훈련** 광주지역 초등학생 100명으로 구성된 광주명예경찰소년단이 28일 광산구 경찰특공대 훈련장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접목한 특공훈련을 체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NGO센터 내일 개소  
상무지구 KT텔레캅 건물**

광주지역 NGO(비정부기구)의 '사랑방' 역할을 할 광주NGO센터가 오는 30일 광주 상무지구 KT텔레캅 호남본부 건물에 들어선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KT텔레캅 호남본부 건물 3, 4층에 들어설 NGO센터에서는 NGO에 가입하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등 정보제공 및 지원 활동이 이뤄진다.  
또한 NGO센터에서는 NGO 간에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세미나 등이 개최된다. NGO센터 운영은 시민·사회단체 360여 개로 구성된 사단법인 '광주NGO시민재단'이 맡게된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피해자 없는 교통사고도 범규 위반 땐 범칙금  
경찰청 지침 실효성 논란**

**운전자들 자차사고 딱지 끊으면 경찰 부를까 의문**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가 멀쩡하고 가해자만 다쳤더라도 경찰이 가해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해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가해 운전자만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때에도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통고 처벌하라'는 내용이 담긴 교통사고 처리 지침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동안 경찰은 단순히 물적 피해만 있는 교통사고(단순 물적 피해 사고) 때 보험처리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다면 대개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통고처분하지 않았다. 또 가해자만 다쳤을 때에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통고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교통법규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다쳤더라도 피해자 유무와 무관하게 통고처분을 하라는 경찰청의 최근 지침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자차 사고를 내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경찰관이 나와서 딱지를 끊으면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히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까지 교통사고 처리지침이 개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날 열린 화상회의에서 공청회와 같은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통사고 처리지침을 개정한 뒤 시행해 줄 것을 본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통고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교통법규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다쳤더라도 피해자 유무와 무관하게 통고처분을 하라는 경찰청의 최근 지침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자차 사고를 내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경찰관이 나와서 딱지를 끊으면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히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까지 교통사고 처리지침이 개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날 열린 화상회의에서 공청회와 같은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통사고 처리지침을 개정한 뒤 시행해 줄 것을 본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상무로~양동로 4.2km 구간  
차선 줄여 중앙분리대 설치**

광주시가 내년까지 33억 여 원을 들여 상무로~양동로 4.2km에 이르는 구간의 차선을 줄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수립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을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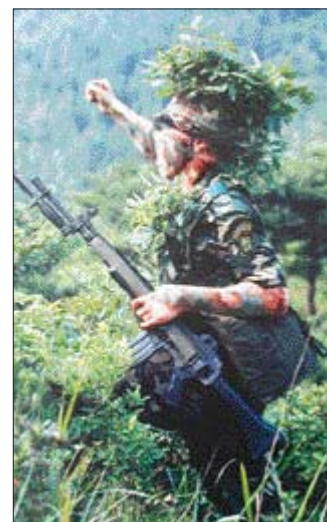
쳐 교통량을 근거로 상하행선 중 차선 축소 부분을 설정했으며, 중앙분리대에는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올해는 송정나들목~운천저수지(2.4km), 내년에는 운천저수지~임동오거리(1.8km)까지 구간을 나눠 진행

하며, 교통 소통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분리대는 도심 가로에 녹지를 설치해 쾌적함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불법 유탄이나 무단횡단 등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에 중앙 식수대(植樹帶)가 설치된 가로는 시청로와 가야로, 운암동 고속도로 진입로 등이며, 이 같은 대단위 설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초급장교 육성 요람  
육군 보병학교 60돌**

**40여만명 배출**

'호국간성(護國干城)'의 요람인 육군 보병학교가 올해로 창설 60주년을 맞았다.  
육군보병학교는 29일 오전 9시 장성군 삼서면 부대 내에서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60돌을 자축한다.  
지난 1949년 7월 29일 경기도 시흥에서 창설된 보병학교는 '나를 따르라'의 숭선수범 정신을 통해 60년의 긴 세월동안 초급간부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보병학교를 거쳐간 초급간부는 40여만명에 달하며, 현재도 연간 4천여명의 간부를 교육 중이다.  
보병학교는 6·25전쟁 기간 중에 부산(1950년 8월 15일)과 광주(1951년 10월 27일)로 옮겼다가 1994년 12월 17일 현 위치인 장성에 동지를 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보병학교는 특히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9일 학교 전 장병과 교육생들이 문산·김포 지구 전투에 참가해 북한군 6사단과 맞서 비오듯 쏟아지는 포탄 속을 헤치며 적의 전차를 육탄으로 저지했다.  
비록 이 전투에서 982명이라는 큰 희생을 치렀지만,赫赫한 전공을 인정받아 4년 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부대표창(1954년 9월 18일)을 수상하기



도 했다.  
보병학교는 또 각종 재해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군대로써 복구 및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 지역민과 아픔을 함께 나눠 왔다.  
지난 2007년부터는 어등산 불발탄 제거작전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는 등 군사 격장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상태로 되돌려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종해 육군보병학교장은 "보병학교는 창설 후 60년이 흐르는 동안 '국가안보 전투력의 산실'로 자리잡았다"며 "나를 따르라'는 숭선수범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예화된 선진 육군 육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39분 해질 19시 38분 달돋이 13시 24분 달질 23시 42분

**흐리고 곳곳에 비**  
흐리고 비온뒤 오후부터 점차 개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흐리고 비	20/27℃
목포	흐리고 비	20/26℃
여수	흐리고 비	21/25℃
완도	흐리고 비	21/28℃
구례	흐리고 비	20/27℃
애남	흐리고 비	21/28℃
장흥	흐리고 비	21/28℃
고흥	흐리고 비	21/27℃
순천	흐리고 비	21/26℃
영광	흐리고 비	20/27℃
진도	흐리고 비	21/28℃
전주	흐림	20/28℃
남원	구름맑음	19/27℃
목포	흐리고 비	20/25℃

지외선지수: 13.1 / 식중독지수: 보통 / 불쾌지수: 보통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0(목)	31(금)	8/1(토)	2(일)	3(월)	4(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21/31	21/30	21/30	22/31	21/31	21/31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광신대학교**  
남여공학대학 605-1114 / 대학원 605-1115

**“위험할 땐 태권도장으로 피신”**  
광주 태권도장들 학교폭력 긴급 피난처로

**교육청과 협약**  
광주지역 태권도장들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긴급 피난처로 활용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8일 '광주태권도협회 산하 320여개 태권도장이 학교 폭력이나 범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의 긴급 피난처 역할을 하기로 하고 29일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학생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위험에 노출된 학생이 태권도장으로 피신하면 관장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또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들은 '학생안전지원단'을 만들어 학교의 등·하교 시간이나 저녁 취약 시간에 순찰을 하기로 했다. 각 태권도장은 각급 학교의 방과 후와 재량·특별활동 시간에 하는 호신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300여명의 태권도장 관장을 학생안전교외생활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 학교폭력 대처요령, 지도방법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각 태권도장과 운행 차량에는 시교육청 지정 '학생안전 긴급지원시설'을 알리는 엠블럼과 차량용 스티커 등이 부착된다. 한편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690여건에 가해학생만 1천800여명에 이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아이엘리시아**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아이엘리시아는 맛과 건강을 생각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남산로1길 11-1 (남산동) 아이엘리시아  
문의: 02-671-1199